



# “약시장 경기 이젠 끝났나”

## 국산 약재값 폭락, 대량주문 끊긴지 오래

소비심리 위축으로 썰렁하기만한 한약업계의 얼음장 경기는 국산한약재의 전반적인 가격폭락 현상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약재 시세가 평균 5백~1천원 폭으로 내리막길.

유근피 통황기등 일반 재래시장에서 민간요법용으로 수요가 꾸준한 품목에 대한 주문만 소량씩 간간이 이어지고 있을 뿐, 대량주문이 끊긴지 이미 오래다. 지방의 중간수집상들의 경우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수급이 어려워 타격은 더욱 큰 편. 자금 회전이 안되고 있어 업계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장 관계자들은 “약 시장이 이젠 끝났다”고 까지 표현하고 있는 상황.

**하수오** 지난해부터 수직 하강세를 보이며 추락해 가고 있는 하수오 시세는 최근 소비부진으로 바닥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수요량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 과잉재배로 물량이 남아돌

기 때문이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하수오 근당(백g기준) 도매시세는 굵직한 상품으로 1천5백원 선이며 지난달 2천~2천8백원 시세보다 무려 1천원 폭 이상 하락 했다. 심지어는 근당 5백~1천원선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들도 많다. 일부 시장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3년은 재배하지 않고도 소비할 물량이 현재 재고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충** 소비부진으로 시세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거래되는 두충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중품이 4천5백원선으로 지난달보다 1천원 폭으로 하락세다. 하품은 근당 3천~3천5백원선. 시세폭락으로 농가에서 주피작업을 중단함에 따라 상품은 시중 출하되지 않고 있어 물량이 귀하다.

**백출** 토백출은 근당(6백g 기준) 9천원 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개량종은 근당 5~6천원선. 그러나 개량종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는 편이어서 일부 지방에서 토자와 섞여 유통되기도 한다고.

그동안 토백출만 사용해 온 소비처들은 토자만 찾고 또 값이 저렴한 물건을 선호하는 측에서는 근당(6백g 기준) 3천원선인 수입백출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 급속히 확대재배되기 시작한 개량종 백출은 판로가 여의치 못한 편이다.

찾는 수요자가 없어서인지 재배면적에 비해 시중 출하 유통되는 개량종 물량은 그리 많지 않다는 시장 관계자들의 설명.

**독활** 그동안의 재고량이 이젠 거의 소진돼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활 시세는 중 보합세다. 근당(6백g 기준) 2천7백원 선(절)에 도매거래 되고 있으며 율하반기 무렵 다소 오름세 보일 전망이다.

세는 1년근의 경우 통자로 2천5백~3천원 선이며 절황기는 근당 3천~4천원 선이다. 중황기 시세도 하락 1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3만원 선이던 대황기도 수요가 없어 2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천궁**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근당(6백g) 천궁시세는 토천궁이 4천~4천5백원선에 도매거래되고 있으며 일천궁은 근당 2천3백~2천8백원 선이다. 산지에 재고량이 약 1천여톤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가 없어 당분간 보합세 유지될 전망이다.

〈문정희〉

### 시장동향

## 대구 한약재 도매시장 입찰액 눈에 띄게 줄어

국산약재 시세가 전반적인 폭락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 한약재 도매시장에서 5일장마다 이루어지는 경매입찰액 규모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대구한약도매시장 중매인 신영달씨(생약협회 영천시 공판장장)는 “최근 한약재 도매시장에서 경매입찰되는 1일 물동량은 1만 5,6천근으로 평균 물동량인 2만근에 비해 입찰물량의 차이는 그리 크

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1만5천근에 (9,000kg)에 대한 입찰규모가 IMF이전에는 1억원 정도였다면 지금은 보통 3~4천만원 많은 날은 5,6천만원 규모로 동 물량에 대한 입찰가가 평균 40~50%폭락했다”고 말했다.

경기위축으로 대량소비는 거의 없고 출하되는 약재품질은 예전보다 더 상품이라는 평.



# 재배 기피현상 두드러져

## 황기 당귀 파종 예년 절반 수준 백출 지황 시호 면적 다소 증가

사회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약재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 산지에서 매기는 거의 두절된 상태다. 예년비 약재 재고량도 2~3배 증가한 가운데 올 생약재배 기피현상은 어느해 보다 두드러지는 경향. 그중 비교적 상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백출, 홍화, 시호, 지황등 재배면적이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생약생산농민들의 주재배품목이던 황기, 당귀, 천궁 등은 재고량 누적과 시세폭락으로 재배면적이 절반이하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시호** 지난 94년 이후 삼도시호 수출증단과 함께 국내

시호 재배면적도 급감, 생산량 부족으로 시세가 꾸준히 상보합세를 유지해온 때문인지 산지에서 올 시호 파종량은 다소 증가 추세다. 시호는 수입이 제한돼 있는 수급조절품목인데다 국산을 찾는 소비자들이 비교적 많아 생산원가를 절감한다면 시장성은 밝을 것으로 전망.

**황기** 소비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황기 재고량이 약 2천여톤으로 추정됨에 따라 산지에

서 올 황기 재배면적은 예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 30~4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도 이천, 포천을 비롯 강원도 정선, 충북 제천등 황기 주산지에서는 매기가 끊긴지 오래고 생산농가마다 작년 생산량을 참고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 1년생의 경우 산지에서 근당(600g기준) 3천원에도 살 사람이 없다고.

**맥문동** 햇것이 소량씩 출하돼 나오기 시작한 맥문동은

**지황** 국산한약재 시세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생약 재배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지황은 비교적 밝은 전망속에서 올 재배면적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중의 하나.

지금은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싶어도 종근을 구할 수 없어 재배할 수 없는 상황. 종근값도 근당(6백g 기준) 2천 5백~3천원 선으로 높은 시세를 형성했다.

**당귀** 지난 96년 하반기 당귀시세가 상보합세를 이룬 영향으로 97년 당귀 생산량은 대폭 증가. 현재 산지에 쌓여 있는 당귀 재고량은 전국적으로 약 1천여t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기가 끊긴 관계로 시세도 하락세. 올 당귀 재배면적도 예년의 절반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묘도 귀한편이라고.